

張赫宙 문학과 패전국민의 삶

-패전 직후의 일본민중을 형상화한 작가의 휴머니즘-

金 鶴 童*

目 次

1. 머리말
 2. 『고아들(孤兒たち)』에 형상화된 작가의 휴머니즘
 3. 『사람의 선함과 악함(人の善さと悪さと)』과 패전직후의 다양한 인간군상
 4. 여성의 생명력을 형상화한 『젊은 여자(若い女)』
 5. 맺음말
-
-

1. 머리말

식민지 말기에 활발한 친일적 작품 활동을 해온 장혁주¹⁾는 일제의 패전으로 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일조선인 사회의 멸시에 찬 시선과 살해 협박을 감내해야만 했다. 또한 조국에서도 그를 환영할 리 없었으므로 고립무원의 고독한 생존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장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패전 직후를 살아가던 장혁주의 눈에 비친 일본민중의 고되고 궁핍한 삶은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작가적 감수성을 자극하였으며 이들을 소재로 한 일련의 작품을 집필하게 만든다. 이 시기의 일본민중을 형상화한 작품으로는 장편 『고아들(孤兒たち)』(1946)과 『젊은 여자(若い女)』(1948), 단편집 『사람의 선함과 악함(ひとの善さと悪さと)』(1947)을 들 수 있는데, 전쟁으로 부모를

*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시간강사

1) 張赫宙 : 1905-1997, 본명 張恩重, 張赫宙는 필명, 일본으로 귀화한 1952년 10월 이후에는 점차 노구치 가쿠추(野口赫宙)라는 필명을 사용, 창씨명 및 일본명 노구치 미노루(野口稔).

없고 고아가 된 어린이와 생활고에 허덕이는 여성들의 고통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이 비록 과거의 친일 경력을 지닌 작가에 의해 한민족이 아닌 일본인들의 패전 직후의 참상을 그려내고 있다하더라도, 순수한 작가적 감수성을 되찾은 결과물이라는 점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본의 하층 민중들 역시 군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전쟁의 피해자라는 점을 생각할 때 작가의 인본주의적 자세는 평가할만하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패전 직후의 일본민중의 생활상을 그려낸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무고한 피해자로서의 어린이와 여성들에 대한 작가적 시선과 전쟁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 집필에 임한 작가의 휴머니즘²⁾적 자세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2. 『고아들(孤兒たち)』에 형상화된 작가의 휴머니즘

2.1. 『고아들』의 집필 배경

『고아들』은 일본에 머물던 장혁주가 일제의 패전 이후 처음 집필한 소설로 1946년 12월에 출간되었다. 「후기」에 집필 완료 시점을 1946년 3월 20일로 적고 있어서 일제의 패전 직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은 일제말기의 국책 영합적 작품이나 작가적 체험을 다룬 자전적 소설과는 크게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작가의 내면세계 깊숙이 감춰져 있던 인간에 대한 애정을 문학으로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순수한 작가적 감수성을 담아낸 작품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작가의 「후기」에 잘 나타나 있다.

나는 『고아들』이 소설로서 뛰어난 작품인지 어떤지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보다 내 가슴을 도려내고도 남는 비참한 사실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되었는가, 그리고 이 비참한 사실을 우리들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고 싶다는 나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나 이 소설이 도움이 되는가가 문제이다.(276)³⁾

약간은 의도적인 표현이 엿보이고 있지만, 패전 직후에 부모와 형제를 잃고 길

2) (장혁주 문학의) 휴머니즘 ; 孫才喜는 「장혁주 문학의 연속과 비연속(張赫宙文學の連続と非連続)」(『日本文化の連続性と非連続性, 1920年-1970年』勉誠出版, 2005)이라는 논문을 통해 귀화 이전의 장혁주 문학의 전반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는 『孤兒たち』 『人の善さと悪さ』에 대하여 ‘휴머니즘적 시점에서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짧게 언급한 뒤, 『孤兒たち』의 줄거리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169,170쪽) 그러나 ‘휴머니즘적 시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3) 본고의 제2장에서는 <張赫宙(1946) 『孤兒たち』, 萬里閣>을 텍스트로 삼았다. 괄호 안의 숫자는 텍스트의 쪽수를 나타낸다. 이하 같음.

거리를 배회하는 수많은 고아들을 응시하는 작가의 인간애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세는 일제의 패전 이후에 한일 양국으로부터 미아처럼 내버려진 작가적 상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일제의 패전은 국책적 작품을 집필해온 장혁주의 그간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으며, 패전국 일본은 그를 처벌해야한다는 제일조선인 사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은신처가 되지 못하였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생각에서 태극기가 걸려있는 조련(朝連) 사무실⁴⁾을 찾는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에 열중하고 있던 젊은 학생들은 찾아온 작가를 놓고 “없애버리자는 쪽, 좀 더 기다리자는 쪽, 처치하려면 방법을 생각하자”⁵⁾는 등의 열띤 토론을 벌인다.

장혁주는 자신이 겪고 있던 곤란이 친일적인 글쓰기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망한 나라의 풀 죽은 국민들의 모습에 의지할 바 없는 고독을 느끼고 또다시 절망의 나라”⁶⁾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작가의 고뇌를 통해 엿보이는 것은 여전히 기회주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친일작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 일본인이 좋아서 의지하려 했다기보다는 살고자하는 본능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오히려 솔직한 표현이 돋보인다 하겠다.

한편 일본의 출판사들도 장혁주라는 작가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패전국 일제에 협력한 작가의 저작을 출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립무원의 고독 속에서 작가는 패전국 민중들의 참상을 자신의 일처럼 순수한 아픔으로 응시하게 된다.

나는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사람들의 애처롭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사실에 직면하고 심신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금할 길이 없었다. (중략) 이렇게 완성된 것이 「餓鬼道」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이것이 나의 출세작이 되었는데, 나는 이것을 쓸 때 세련된 소설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다.(275)

작가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餓鬼道」는 사리사욕이나 공명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작가적 입장에서 집필된 작품으로, 『改造』 입선 당시인 1932년에는 일본문단에 등단한 최초의 조선인으로서 일제에 대한 저항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그런데 패전을 살아가는 일본민중의 참상에 직면하고는 다시금 그와 같은 심정으로 되돌아가 집필한 것이 『고아들』

4) 해방직후의 제일조선인 연맹(朝連)에는 태극기를 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장혁주(1953)著·이주현 옮김 「脅迫」, 호테이 도시히로 엮음(2002) 『장혁주소설전집』, 太學社, p.260 ; 이 작품은 자전적 단편소설로 작가의 친일행위로 인해 제일조선인들로부터 살해협박을 당하는 등 해방 직후에 처했던 곤경을 그려내고 있다.

6) 주(5)와 같은 책, p.260

이라고 작가는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이 작가의 공명심이나 출세욕을 떠난 순수한 사명감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것은 작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작품 분석을 통해 쉽게 확인된다.

그리고 작품 「후기」에는 일본인 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과 패전 직후에 도심을 배회하는 전쟁고아들의 모습이 겹쳐진 채 연상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고아들』을 쓰게 되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장남은 1938년, 차남은 1940년에 태어났으므로 해방되던 해에는 각각 8살과 6살이 되어 있었다.

우에노(上野)나 그 밖의 지역에서 유랑자나 특히 전쟁고아를 만날 때면 나는 내 자식들이 떠도는 것 같은 애처로움에 사로잡혔고, 그 어린 것들의 심정을 헤아릴 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느꼈다.(275,276)

어쩌면 이것이 『고아들』을 집필하게 만든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작가는 그만큼 신변의 일을 소재로 삼은 작품을 많이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자신의 자식들과 전쟁고아들의 비참한 모습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 『고아들』을 집필했다 하더라도 작품 그 자체가 지닌 휴머니즘이 빛을 잃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경위야 어찌 되었든 인간의 삶을 순수한 시각으로 응시하며 느끼는 아픔이야 말로 인본주의적인 글쓰기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고아들』 역시 이와 같은 작가적 태도를 바탕에 둔 작품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2.2. 『고아들』의 작품세계

『고아들』은 패전 직후의 혼란한 도쿄 도심에서 끼니를 구걸하며 거리를 배회하는 전쟁고아들의 참상을 그려낸 작품이다. 더불어 이러한 참상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패전 이후의 궁핍 속에서 구호물자 등의 횡령에 혈안이 된 위정자들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아내고 있다.

한편 적극적이고 선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재일조선인을 등장시켜 작품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민족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자 과거의 친일적 집필에 대한 반성임과 동시에 동족의 일원으로 회귀하고 싶다는 작가의 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2.1. 전쟁고아들에 대한 연민과 고통의 작가적 시선

『고아들』은 도쿄 도심의 우에노(上野)역 등을 주요 무대로 15세의 요코(陽子)라는 고아소녀가 겪는 고통과 이의 극복 과정을 다룬 소설이다. 요코의 부친은 미

타카(三鷹)의 비행기 공장에서 폭격으로 사망했으며, 그녀가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야간작업에 동원되었을 때 나카노(中野)역 근처의 자택에 있던 모친과 두 남동생 역시 폭격으로 불타 죽는다.

줄지에 전쟁고아로 전락한 요코는 4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고모의 집으로 들어가 겨우 굶주림을 면하고 있었으나, 도저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게 된 고모는 “설사 술집으로 팔려간다 해도 이곳에서 함께 죽는 것보다는 낫다”(25)는 생각으로 그녀를 도쿄로 내보낸다. 가진 것이라고는 고모가 싸준 주먹밥 몇 개가 전부였던 요코는 부랑자와 전쟁고아로 흘러넘치는 우에노역에서 나이 어린 고아들의 구걸을 지켜보며 신문팔이로 연명해 간다.

이 와중에서 요코는 소학교 4학년인 쇼이치(庄一)와 이보다 4살 아래인 겐지(謙次)라는 두 남자 형제를 만난다. 요코는 두 어린 소년의 모습에서 모친과 함께 불타죽은 자신의 남동생들을 떠올리고는 더 없는 연민을 느낀다. 소년들의 부친은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으며, 모친은 폭격으로 타죽었고, 이들을 돌보던 할머니마저 숨을 거두는 바람에 집단수용소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수용소를 도망 나와 구걸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두 소년과 마찬가지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거리를 배회하는 많은 어린 영혼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이유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작가의 섬세한 시선은 전쟁의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날카롭게 포착하여 묘사하고 있으며, 무언의 분노는 참혹한 현실의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표출된다.

요코는 두 소년을 데리고 떠돌다가 아사쿠사(淺草)의 불에 탄 대가람(大伽藍) 지하에 마련된 열악한 시설에 수용된다. 이후에도 그녀는 신문팔이로 두 형제와 함께 근근이 연명하고 있었으나 몸이 허약한 쇼이치가 소아결핵으로 피를 토하며 들어 눕는다. 삶은 수건으로 찢질을 해주려면 냄비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한 요코는 하루만 곁에 있어달라는 쇼이치의 가녀린 애원을 애써 뿌리치고 신문을 팔러 나선다. 이 사이에 쇼이치는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된다.

가슴이 답답했다. 심장이 당장이라도 멈출 것만 같았다. 담이 목에 걸려 숨쉬기가 힘들었다. (중략) 자신이 죽고 나면 겐지가 얼마나 슬피하며 두려워할까. “겐아-, 겐아-” (중략) ‘잘 있어’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겐지의 잠을 깨울 방법이 없었다. 손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겐지가 혼자 살아갈 일을 생각하자 괴로웠다. 그런데 숨은 멈춰가고 있었다. 두 줄기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흑하고 숨을 들이쉬는가 싶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191)

쇼이치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묘사를 통해 작가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생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섬세한 감수성을 엿볼 수 있다 하겠는데, 이와 같이 사실적이고 감상적이며 생동감 있는 휴머니즘적 표현들은 작품 전반을 관류한다.

잠에서 깨어난 겐지는 커다란 공포에 휩싸인 채 방황하다가 요코의 주변만을 맴돌며 한시도 곁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요코의 충격도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설상가상으로 수용소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세이로쿠(清六)라는 건달패 복원 군인에게 겁탈당하고 만다. 요코는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다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한다. 그 때마다 겐지가 옆에 있음을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지만 자신의 방황 때문에 굶주리는 가련한 모습을 보다 못하여 수용소로 데려가 잠을 재운다. 그리고는 새벽녘에 홀로 빠져나와 전차 선로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간다. 물론 자살하기 위해서였다.

동쪽의 구름이 투명한 색으로 물들었다. (중략) 인간의 모습이 보였다. 알 수 없는 생기를 느꼈다. 전차가 기적을 울리며 달린다.

(다들 생기가 있네)

힘이 있었다. 살아가려는 힘. (중략) 생을 방해하는 모든 곤란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눈에 보였다.

“다들 열심히 싸우고 있구나.”

인간도 전차도 하늘도 나무도 구름도 모두 투쟁하고 있었다. 요코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러한 자신에 반감을 느꼈다. 요코는 일어섰다.(239)

겁탈당한 충격으로 자살만을 생각하던 요코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투쟁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삶을 확보해나가고 있음을 깨닫고 재기의 힘을 얻게 된다. 주인공 요코의 이러한 변신은 패전 직후의 혼란과 굶주림 속에 버려진 채 고통 받는 어린 영혼들이 용기와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작가의 염원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삶의 희망을 되찾은 요코는 바로 겐지를 찾아 나선다. 눈물로 날을 지새우던 겐지에게 모처럼의 식사다운 음식을 사 먹이던 요코는 “웬지 모르게 샘솟는 의욕과 삶에 대한 강한 의지”(274)를 자각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작품의 전개는 제일조선인 작가가 고국의 고통 받는 동포들이 아닌 일본민중의 참상이나 그려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일제의 패전으로 발생한 부랑자와 전쟁고아들은 고국의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허황된 꿈으로 전쟁을 일으킨 전범자들의 또 다른 희생자들인 것이다. 휴머니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피해국민이든 가해국민이든 무모한 전쟁에 의한 희생은 지양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러한 참상의 원인을 제공한 위정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혁주의 작품이 갖는 의의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휴머니즘적인 작가의 자세는 일제말기의 친일적 집필행위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일제말기에 국책 영합적 작품들을 양산한 당시의 작가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순수한 휴머니즘적인 입장에서 집필

된 작품마저 외면하는 것은 바람하지 않기 때문이다.

2.2.2. 군국주의와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

장혁주의 전쟁고아들을 향한 연민의 시선은 이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인간군상을 고발한다. 쇼이치와 겐지 두 형제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잃고 나서 전쟁고아 수용소에 수용된다. 그런데 급식사정이 너무 열악하여 평소에 몸이 허약했던 쇼이치는 병에 걸리고 만다. 수용소에서는 사회단체에서 기부한 음식물을 고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사들끼리 몰래 간식으로 먹다가 아이들한테 들키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교사들은 “너희들에게는 배급량만큼 먹고 있다. 배고파 죽겠거든 총리대신에게 말하라”(47)며 아이들을 폭행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시작된 작가의 분노는 전쟁을 일으킨 일제와 패전 이후의 위정자들에게 향한다. 요코를 겁탈한 퇴역군인 세이로쿠의 파괴된 인간성에 대해서는 “군벌의 죄악은 전쟁을 일으켜 인류를 불행에 빠뜨린 점에 있지만, 세이로쿠와 같은 소년의 품성을 타락시킨 것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다”(108)는 표현을 통하여, 강압으로 자살 특공대에 편입시킨 뒤 술과 여자로 그들의 심성을 마비시키려한 일제의 군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폭로한다.

이처럼 군국주의자들은 인류에게 비참한 고통을 안겨주고 국민을 고뇌의 나락으로 밀어 넣고는 종전이 되자마자 자신들의 안위에만 급급하여 거액의 임군비(臨軍費)를 착복하거나 집적물자(集積物資)를 횡령하여 사라지는 것이었다.(9)

세이로쿠의 타락은 전쟁 당시에 철석 같이 믿고 있던 상부와 조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초래된 것으로 “이놈 저놈 다 도둑놈이다”(109)라는 생각이 굳어져 자신도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복수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묘사된다. 즉 군벌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으로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과 부정한 재산의 형성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힘없는 노약자, 그 중에서도 전쟁고아들은 굶주리다 못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이러한 구시대의 군부세력과 현당국의 무능한 지도력에 대한 비판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전쟁고아들의 비참한 생활모습 사이에 우회적인 형태로 엮어 넣음으로써 자연스런 소설문학으로 완성시키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작가 자신은 “소설로서 뛰어난 작품인지 어떤지는 관심이 없다”(276)고 말하고 있으나, 이를 의식하고 썼던 일제말기의 많은 작품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문학성을 지녔다고 말 할 수 있다.

다만 작가 스스로가 국책영합적 집필이라는 떼떼치 못한 경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당시의 군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기회주의적 행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2.2.3. 재일조선인에 대한 우호적인 형상화

『고아들』의 주인공 요코가 겁탈당한 충격으로 자살까지 시도했던 좌절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기 시작했을 무렵, 그녀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인물로 재일조선인이 등장한다. 이름은 나오지 않고 요코가 ‘오지상(아저씨)’라고만 부르는 그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심에서 구두닦이를 하고 있었다. 오지상은 쇼오지가 죽자 필요 없게 된 냄비를 팔기 위해 웅크려 앉아있던 요코에게 말을 걸어 그녀가 전갱고아임을 알게 된다. 요코가 냄비를 팔아 자신도 구두 닦는 도구를 사고 싶다고 말하자, 오지상은 냄비도 대신 팔아주고 구두 닦는 도구도 무상으로 요코에게 넘겨준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요코에게 그는 말한다.

“조선은 독립했거든” 검붉게 탄 얼굴이 밝아지며 “조선에 처자가 먼저 돌아가 있단다. (중략) 난 일본에 와서 고생 좀 했지. 남은 돈도 없고. 그러나 이제 곧 돌아갈거야. 돌아가면 다 잘 되겠지. 포도 사놓았으니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거든. (중략) 자, 이걸 주마, 구두 닦는 법은 알지?”(244,245)

오지상은 요코에게 구두 닦는 법을 알려주고 검정과 빨강 구두약을 새로 사서 건네주며 “열심히 해야 해, 정직하게만 하면 신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실 테니까”(245)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떠나간다. 요코는 이후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재일조선인 아저씨를 생각하며 용기를 얻는다.

작품에 묘사된 재일조선인의 모습에서는 작가의 고국에 대한 동경을 엿볼 수 있다. 그 동안의 고생도 고국에 돌아가기만 하면 말끔히 해소될 것 같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는 재일조선인, 과거의 친일적 글쓰기로 인해 이를 실천하기 어려운 작가 자신의 현실적인 고독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작품에 그려진 재일조선인의 모습에는 작가의 동포에 대한 깊은 애착을 담겨 있다 하겠다.

그런데 『고아들』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패전 직후를 그리면서 재일조선인을 등장시킨 작품으로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내가 버린 여자(わたしが棄てた女)』가 있다. 이 소설은 패전 후 3년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나, 발표된 시기는 1963년이므로 장혁주의 작품보다 17년이나 늦다. 그리고 작품에 등장하는 재일조선인 김상(金善)은 남자 주인공 요시오카(吉岡)에게 잡일을 주는 꽤 비중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당시의 혼란한 세태 속에서 능란한 처세술과 상술을 동원해 살아남으려는 약간은 교활한 그러나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된다.

『고아들』과 『내가·버린·여자』 두 작품은 패전 직후의 고통스런 민중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주인공들의 구성과 역할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순박하고 착한 여주인공이 자신의 힘든 처지에도 불구하고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허덕이고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다는 인간성의 형상화라는 점도 그러하거니와, 여주인공의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남성들의 무책임한 이기주의적인 행태의 묘사에 있어서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재일조선인의 어중간한 일본어 발음을 가타카나로 강조하여 표기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고아들』의 경우)(243)

さうだね(さうだね) — 소오따네(소오다네) — 글쎄
 それで(それで) — 소레떼(소레테) — 그런데
 トウク(とうく) — 또오꾸(도오구) — 도구

(『내가·버린·여자』의 경우)⁷⁾

むたつかい(むだづかい) — 무따쓰까이(무다즈까이) — 낭비
 どうも(どうも) — 또오모(도오모) — 아무래도
 げんき(げんき) — 겡끼(겡끼) — 기운, 원기

(원문의 재일조선인 발음을 먼저 표기하고, 괄호 안에는 일본인들의 표준적인 발음을 표기하였다. 한글에 의한 발음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르지 않고 실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고자 했다. 밑줄은 필자의 임의)

이와 같은 공통점으로 미루어 엔도가 장혁주의 작품을 참고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만 본고에서는 이들 작품이 재일조선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에 한정하고자 한다.

『내가·버린·여자』에서는 재일조선인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냉소적인 표현 이외에도 ‘제3국인’⁸⁾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쓰기도 한다. 이 말은 일제의 패전 이후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조선)인과 중국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되던 것인데, 보다 사실적인 표현을 위한 작가적 노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숨겨진 의도는 없는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즉 작가 엔도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무의식이 작품을 통해 표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사한 시대배경과 등장인물을 다루고 있는 두 작품에 묘사된 재일조선인의 모습은 사뭇 대조적이라 할 수 있는데, 고국과 일본의 동포들에 대한 애착을 담아내려는 장혁주의 노력이 돋보인다 하겠다.

7) 遠藤周作(1972) 『わたしが棄てた女』, 講談社, 20, 21쪽.

8) 주(5)와 같은 책, p.14

3. 『사람의 선함과 악함』과 패전 직후의 다양한 인간군상

『사람의 선함과 악함(人の善さと悪さと)』(丹頂書房)은 「内弟子의 고백(内弟子の告白)」(1947,1) 「갈림길(わかれみち)」(1947,1) 「영원히(とこしえに)」(1947,5) 「탈출(脱出)」(1946,12) 「처제에게(妹へ)」(1947,1) 「사람의 선함과 악함(人の善さと悪さと)」(1947,2)의 단편 6편을 수록한 작품집으로 1947년 12월에 출간되었다. 단편집의 제목은 6편의 작품 중에서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内弟子의 고백」은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된 아내의 질녀 스미에(すみえ)가 작중의 작가에게 보내온 편지를 토대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다. 여학교를 졸업하였으나 마땅한 취직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질녀는 작가의 주선으로 양재업소의 内弟子로 들어가게 된다. 이후 그녀는 양재 스승 부부의 일상에 관하여 보고서 성격의 편지를 계속 보내온다. 편지에는 생활력이 강한 아내 마쓰에(まつえ)가 남편 호시노(星野)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여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내용이 많다. 그러다가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호시노가 질녀인 스미에에게 청혼을 해오자 그녀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이 작품은 패전 직후의 궁핍한 사회상을 배경으로 발생하는 부부의 갈등 양상을 다루고 있다. 평소에는 아내의 멸시에 찬 잔소리를 묵묵히 듣기만 하던 무능한 남편이 가슴속에 점차 아내에 대한 증오를 키워가다가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젊은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결말을 통해 남녀의 이성관계가 내포하고 있는 복잡한 양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하겠다.

「갈림길」은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 필리핀 전선으로 끌려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돌아왔으나 얼마 안 있어 아내가 죽는 바람에 어린 아들과 힘든 생활을 꾸려나가는 주키치(重吉)⁹⁾의 궁핍한 삶을 그려내고 있다. 주키치는 아내를 여윈 뒤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장모와 처제가 있는 시골로 내려가 의탁하게 된다. 그러나 패전 직후의 궁핍한 생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장모와 처제의 교활한 이기주의적 행태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오게 된다. 이후의 그는 사람을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이 작품 역시 패전 직후의 궁핍한 생활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 주키치는 필리핀 전선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 부상당한 동료의 식량을 빼앗던 선임하사가 결국은 말라리아에

9) 작품에는 重吉이라는 한자 이름만 나와 있으므로 ‘시게요시’라고 읽을 수도 있다.

걸려 죽는 장면을 떠올리며 “이제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¹⁰⁾는 다짐을 하는데, 인간의 이기심을 넘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영원히」는 호시(星)라는 주인공이 아내의 좋지 않은 가문을 탓하며 멀리하고 있었으나 자신에 대한 사랑만은 깊다는 것을 깨닫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진 직후에 징집되어 만주로 떠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시는 만주에서 파라티푸스에 걸려 하얼빈의 수용소에 수감되었으나 고향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해 무단으로 수용소를 이탈한 뒤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나진항으로 향한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일본의 쓰루가(敦賀)항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기뢰의 폭발로 호시는 사망하고 만다.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이 만주에 갔다가 일제의 패전으로 우여곡절 끝에 나진항을 통해 일본으로 돌아온 체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 성격의 소설이다. 주인공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설정은 작가의 경험과 거리가 있지만 나진항에서 화물선의 출항을 기다리던 지루하고 초조한 심정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묘사는 작가적 체험¹¹⁾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탈출」은 남성편력이 심한 金順嬭라는 조선 여인을 사랑한 일본인 하마다(浜田)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그는 김순희의 왜곡된 성격을 일제에 의한 식민지 배에 원인이 있다며 그녀에 대한 사랑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다.

“(전략) 순희씨의 그 성격도 일종의 식민지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장점을 살리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일본적 성격만을 주입시킨 탓에 일본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닌 이상한 성격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중략) 일본은 조선의 경제 조직을 일본식으로 파괴했지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조선의 정신을 파괴했다고 생각합니다.”¹²⁾

작가가 일제말기에 집필한 많은 국책 영합적 작품과는 대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겠는데, 이 소설의 집필목적이 일제의 조선지배에 대한 비판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친일적 글쓰기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반성 없이 이와 같은 내용의 작품을 집필한다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로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으로 하마다라는 폭넓은 이해력을 지닌 일본인을 등장시켜 일제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가하게 함으로써 일본과 한국 양측의 화해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이 작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처제에게」는 남성편력이 심한 주인공의 처제가 패전 직후의 혼란한 상황 속

10) 張赫宙(1947) 「わかれみち」 『ひとの善さと悪さと』, 丹頂書房, p.84

11) 이때의 체험은 자전적 소설 『폭풍의 시(嵐の詩)』(講談社, 1975) 제8장 13에 수록되어 있다.

12) 張赫宙(1947) 「脱出」 『ひとの善さと悪さと』, 丹頂書房, pp.142,143

에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쫓아 남성을 바꾸고, 암거래 등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기주의적인 인간의 본성을 파헤치고자 한 작품이다.

『사람의 선함과 악함』은 작품집의 제목으로 삼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6편의 단편을 대표할 만한 소설이다. 인간의 내면세계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는 이 작품은 패전 직후의 어려움 속에서 각각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 인간군상을 섬세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다.

주인공 시무라(志村)는 출판업을 시작했다는 친구 가지이(梶井)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서점을 해보려고 준비해둔 전 재산 3만엔을 빌려주게 된다.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변제해주지 않자 여러 차례 사무실을 찾아가 결국은 전부 받아내는데 성공한다. 가지이는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끌어 모았다가 생각처럼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결국 파산하고 만다. 그러자 시무라는 “내가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망하게 했다”¹³⁾는 자책에 빠졌고, “나를 속이려던 그보다도 내 쪽이 훨씬 사욕에 사로 잡혀 있었다”며 씩씩해 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을 살리는 것이 인간의 존귀함”¹⁴⁾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이른다.

이 소설은 패전 직후의 궁핍한 생활 속에서 서로가 의심하고 다투기보다는 협력해 잘 사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겠는데, 작가의 인간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의 선함과 악함』에 수록된 6편의 단편은 패전 직후의 혼란과 궁핍한 상황 속에서 각자의 삶을 지속하려는 여러 인간군상을 섬세한 필치로 조명하고 있다. 굶주림과 내일의 불안에 휩싸인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날카로운 작가적 시선을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일제의 식민지 배를 비판하는 내용이 섞여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4. 여성의 생명력을 형상화한 『젊은 여자(若い女)』

『젊은 여자』(河出書房)는 1948년에 출간되었다.¹⁵⁾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3) 張赫宙(1947) 「ひとの善さと悪さと」 『ひとの善さと悪さと』, 丹頂書房, p.231

14) 張赫宙(1947) 「ひとの善さと悪さと」 『ひとの善さと悪さと』, 丹頂書房, p.232

15)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豊)는 「張赫宙作長編〈嗚呼朝鮮〉をめぐって」(『日本學』19,2000.12.132쪽)와 「장혁주의 생애와 문학」(『人文論叢』47,2002.8.70쪽)에서 『젊은 여자(若い女)』가 1948년에 출간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호테이 도시히로(布袋敏博)도 「해방 후 제일한국인 문학의 형성과 전개」(『人文論叢』47,2002.8.99쪽)에서 1948년에 출간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나 ‘未見’이라는 말을 덧붙여 놓고 있다. 본고에서는 1956년에 東方社(東京)에서 간행한 新書版 『젊은 여자(若い女)』를 텍스트로 하였다.

이 장편은 태평양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무렵과 패전 직후의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오에(直江)라는 젊은 여주인공을 그려낸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당시 여성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고발과 이에 대한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오에는 오빠의 폐결핵 수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저택의 식모로 들어가게 된다.

어머니에게 있어 오빠가 얼마나 소중한 자식이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빠를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나의 운명까지도 아귀차게 내걸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반성한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나를 부정할 수는 없다.(10)¹⁶⁾

나오에는 결국 다니던 여학교를 중퇴하고 비뚤어진 심성의 주인여자 밑에서 5년이라는 세월동안 혹독한 식모살이를 견뎌내야만 했다. 모친이 오빠의 수술을 위해 5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선금으로 받아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식모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오에는 오빠의 폐결핵이 생각만큼 심하지 않아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증오가 격렬하게 마음을 헤집고 그 증오를 삭히기 위해 투쟁하는 의식”(62) 속에서 또다시 절망한다. 단지 집안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자신을 노예 상태로 방치해 둔 가족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나오에의 노예와 같던 식모살이를 보다 못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집주인의 친구 아들인 아사노(淺野)였다. 부친의 죽음으로 고아가 된 그는 나오에가 일하는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그녀의 밤낮 없이 일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식모라는 노동계급에 관한 것은 아직 문제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중략) 女工哀史 이상이로군, 현대의 노예야”라며 분개한다. 주인여자의 나오에에 대한 심한 학대를 보다 못한 그는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쏟아 놓는다.

“(전략) 아주머니의 식모 학대는 人道에 어긋나 있습니다. 참혹합니다. (중략)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중략) 그것을 아주머니는 식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비겁합니다. (중략) 아주머니, 남편께서 이 가정의 경제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母權時代, 그러한 것이 원시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아주머니는 오히려 식모를 동정하고 여성해방의……”(58,59)

이 일로 결국 아사노는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나오에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청년이 이러한 생각으로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에 그녀는 큰 감명을 받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아사노는 그녀의 등불이자 생명의 힘”(60)으로 자리 잡는다.

16) 본고의 제4장에서는 〈野口赫宙(1956) 『젊은 여자(若い女)』, 東方社〉를 텍스트로 삼았다. 괄호 안의 숫자는 텍스트의 쪽수를 나타낸다. 이하 같음.

이와 같이 『젊은 여자』에서는 여성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관심을 비교적 깊이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중심사회가 일으킨 무모한 전쟁 속에서 고통 받는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휴머니즘적 형상화를 통하여 일제 사회가 지닌 구조적인 모순을 고발하고자 하는 작가정신에 토대를 두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작가적 자세는 전쟁을 일으킨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반발로 표출된다. 폐병을 앓던 그녀의 오빠는 나오에가 군수공장에서 일을 시작할 무렵에 징용으로 끌려가 필리핀 전선에서 사망하였는데,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 곧이어 일제가 패전하자 직장을 잃은 그녀는 시골을 전전하며 식량을 구해서는 도시에 내다 팔아 연명해 간다. 그러나 이마저도 경찰의 삼엄한 단속 때문에 압수당하기 일쑤였다. 이러한 와중에 그녀가 식모살이로 고통 받고 있을 때 정신적인 도움을 주었던 아사노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 역시 징용으로 동남아전선을 끌려 다니다 일제의 패전과 함께 말라리아에 걸린 몸을 이끌고 돌아와 있었다.

“죄악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싸움터로 내몬 자들의 죄는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가 갈린다구요. 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내 마음은 상처투성입니다. 쉽게 낫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은 그것으로 이미 끝났어요. 망쳤습니다. 패배자지요.”(141)

아사노의 말을 통해 작가는 전쟁을 일으킨 군국주의자들을 맹렬히 비난한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으며 살아있다 하더라도 아사노와 같이 육체와 정신이 망가져버린 폐인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국주의자들이 저지른 만행의 결과를 감내하며 감싸 안아야 하는 것은 나오에와 같이 남성중심사회의 부수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던 여성들이었다.

아사노가 비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있다고는 하지만 이전의 맑고 고결한 정신을 아직 간직하고 있음을 확인한 나오에는 다시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시골을 돌며 식량 조달에 힘쓴다. 궁핍하지만 나름의 생활을 꾸려나갔던 어느 날 아사노는 동남아 전선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자신에게 총을 쏘고 식량과 옷가지를 탈취해간 스키야마(杉山) 하사와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으나 요행히 살아남게 된 아사노는 스키야마에 대한 복수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으므로, 만류하는 나오에를 뿌리치고 야산의 벼랑위로 올라가 격투를 벌인다. 이 싸움에서 스키야마는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고 아사노는 간신히 살아남는다.

복수를 갚은 뒤 자살을 생각하던 아사노는 나오에의 간곡한 권유로 자수하여 5년 형을 선고받는다. 나오에는 어렵사리 배워둔 타자실력을 바탕으로 M계열회사(187)¹⁷⁾에 취업을 하고는 틈날 때마다 아사노를 면회한다. 그 때마다 감옥에 수감

된 많은 청년들에 대해 아사노가 말한다.

전쟁이 없었다면 아마 저 청년들도 강도는 되지 않았을 거요. 창고털이, 노상강도 같은 것은 범죄 축에도 못 끼는 뒤숭숭한 세상이 된 것도 세상이 깊어져야 할 죄 값이지.(189)

아사노의 이 말을 받아 나오에는 “결국 전쟁 탓이 군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아사노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발견하고 “신선한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것”(191)을 느낀다.

작가는 『젊은 여자』를 통해 표면적인 권력 위에 군림하는 남성위주 사회의 허구를 파헤치고, 그 권력의 그늘에 존재하는 여성들의 역할이야말로 사회유지의 원동력임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전쟁을 일으킨 군국주의자들을 비판하여 사회혼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한편, 아사노와 같이 명쾌한 논리의 소유자마저도 좌절의 체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나오에의 부드럽고 생명력 넘치는 여성의 힘으로 정화시켜 간다는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여자』는 한마디로 전쟁 하의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모든 역경을 헤쳐 나가는 젊은 여성의 생명력을 그려낸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끝없는 타락의 유혹과 맞서 이를 극복해가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일제말기의 작가적 행적과는 다르게 일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패전직후의 일본민중의 생활상을 그려낸 장편 『고아들』 『젊은 여자』와 단편집 『사람의 선함과 악함』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전쟁에 대한 작가의 휴머니즘적 입장을 확인해보았다.

『고아들』의 고찰에서는 먼저 작가의 어린자녀들과 같은 또래의 전쟁고아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중요한 집필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비판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우호적인 묘사를 통해 작가의 조국에 대한 동경을 엿볼 수 있었다.

단편집 『사람의 선함과 악함』에 대해서는 6편의 단편을 분석하여 각 작품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주제의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작품집에 수록된 단편들 역

17) 일본의 재벌 미쓰비시의 머리문자 ‘M’으로 생각된다. 즉 안정된 직장을 잡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 패전직후의 고통스런 궁핍 속에서 자칫 이기주의적인 행태로 치닫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았다.

『젊은 여자』는 전쟁으로 개인적인 삶을 희생당한 젊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당시의 사회가 안고 있던 여성에 대한 차별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실질적인 인간사회의 유지에 있어 여성의 절대적인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고자 한 작가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패전직후의 일본민중이 겪는 비참한 생활상을 그려낸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작가의 휴머니즘적 시각이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작가적 시각은 당연히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일제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내포한다.

장혁주는 일제말기에 국책영합적인 글쓰기를 한 전력을 지니고 있는 관계로 이러한 휴머니즘적 작품의 집필까지도 자칫 그의 기회주의적인 행태의 일면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렇지만 본고의 고찰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은 인본주의적 감수성마저 부정해버린다면 장혁주의 작가로서의 삶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参考文献】

- 孫才喜(2005) 「張赫宙文學の連続と非連続」 『日本文化の連続性と非連続性, 1920年—1970年』, 勉誠出版, 169, 170쪽.
- 장혁주(1953) 著·이주현 옮김 「협박」, 호테이 도시히로 엮음(2002) 『장혁주소설전집』, 太学社
- 張赫宙(1946) 『孤兒たち』, 万里閣
- 張赫宙(1947) 『ひとの善さと悪さと』, 丹頂書房
- 白川 豊(2000,12) 「張赫宙作長編〈嗚呼朝鮮〉をめぐって」, 『日本学』 19.
- 白川 豊(2002,8) 「장혁주의 생애와 문학」, 『人文論叢』 47.
- 野口赫宙(1956) 『젊은 여자(若い女)』, 東方社
- 野口赫宙(1975) 『폭풍의 시(嵐の詩)』, 講談社
- 遠藤周作(1972) 『わたしが·棄てた·女』, 講談社, 20, 21쪽.

要 旨

本稿では敗戦直後の日本民衆の生活振りを描いた張赫宙の長編『孤児たち』『若い女』と、短編集『人の善さと悪さと』に対する考察を通じて、社会的弱者の子供と女性、そして戦争に対する作家のヒューマニズム的立場を確認してみた。

張赫宙のこのような敗戦直後の日本民衆の味わった悲惨な生活振りを描いた作品の共通的な特徴は、社会的弱者である女性と子供に対する作家のヒューマニズム的考え方が土台をなしていることと言える。また、そういった作家の立場は当然のことながら、無謀な戦争を起こした軍国主義者に対する批判をも内包している。

張赫宙は植民地末期に国策迎合的作品を多く残していることから、このようなヒューマニズム的作品の執筆までも彼の日和見主義的態度の一面として認識される可能性は大きい。しかしながら、本稿の考察を通じて確認されたように、作家の内面世界に潜んでいた純粋な人本主義的感受性を取り戻した結果として生れた作品と受け止められないこともない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張赫宙、孤児たち、若い女、人の善さと悪さと、親日作家、ヒューマニズム

투 고 : 2008. 5. 31

1차 심사 : 2008. 6. 14

2차 심사 : 2008. 6. 28

住 所: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電 話: 016-413-5841

E-mail: ulsasuca@hanmail.net